



진안군 노인복지관, 추석 맞이 행사 열려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관장 한주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7일 대강당에서 어르신과 지역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기획, 웃음기획' 추석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에는 '진나는 예술여행, 평양 아리랑 예술단'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단은 북한 가요예술단, 아코디언연주, 물동이춤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송편 등 음식 나눔도 함께 진행됐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추석 명절행사 가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2022년 지난 7일 무주군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가정 취약계층 가정 등 60가정을 선정하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추석의 의미를 되살리며 마음을 나누고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명절행사를 진행했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정서적 위안을 도모해 따뜻한 가정의 정과 친정한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복지관 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명절 음식 간식집 전 3종 유과세트 등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금산면 신세계병원, 생활용품 기탁

김제 금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서호연)는 7일 신세계병원(병원장 김한주)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용품(화장지 120만원상당) 57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병원은 매년 명절마다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등 식료품을 기부하는 이를다운 나눔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추석명절에는 코로나9 상황에서 소외되었던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변질 우려가 없는 생활용품을 관내 경로당에 기탁했다.

김한주 신세계병원장은 "코로나9 언택트시대를 지나오면서 만나지 못하는 환우와 가족들 마음을 잘 알기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함께하며 즐기고 서로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뜻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민행복, 활력고장 향한 고창의 꿈과 도전'

심덕섭 고창군수, 신규공무원 대상 특강 "자부심 갖고 마음껏 역량 펼쳐주길"

심덕섭 고창군수(사진)가 7일 오후 3시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올해 신규임용 됐거나 예정인 공무원 60여명에게 '군민행복, 활력고장 향한 고창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평소 공무원들 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온 심덕섭 군수가 신규 공무원들에게 고창군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직접 마련됐다.

특강은 자랑스러운 고창소개, 민생기 고창군 비전 제시,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한 당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창군은 역사와 전통, 생태문화가 살아있는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5관왕 도시라는 사실을 제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고창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



고 있는 시책을 소개하고 향후 비전과 정책방향도 아울러 제시해 새내기 공무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고창의 미래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노을대교와 신재생에너지, 갯벌세계유산보전분부 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밖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창군의 노력과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현안과 정책 등에 대해서도 심 군수가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심 군수는 "고창군이 빌진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군민들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공직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을 이끌어 갈 또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신규 공무원들은 고창군 공직의 중심이며 미래이다"며 "고창군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갖고 마음껏 역량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임실경찰서, 추석연휴 대비 단계별 교통관리 만전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중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차량경찰사무원 단계별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1단계는 5일부터 7일까지 오수와 운수 대목장날을 시작으로 재래시장 및 터미널 주변 다중운집장소 혼잡인파 소통 관리에 주력하고 2단계는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17호 국도 등 주요 교차로 차량정체 해소 및 교통소통에 전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 연휴로 임실국립 호국원 성묘객차량증기로 호국원 노선 30호국도 정체가 예상되어 추석당일 청웅우회도로 임시주차장 활용 및 셔틀버스 2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기동대 18명을 지원받아 호국원 입구등 3개소에 집중배치하여 가시작이고 터너작전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 '서로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정읍시는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서로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지난 6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양성평등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학수 시장과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3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헐링 콘서트가 진행됐다.

식전 공연에는 신비롭 디스코 장구와 정읍시립국악단이 참여해 기념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본 행사는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우수단체 3단체, 민간인 9명, 공무원 1명) 전달식과 함께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가수 조연비와 퓨전국악 밸리댄스의 축하공연에 이어 양성평등에 대한 세대별 콘서트가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의 기념식이 정읍시민 모두가 양성평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도 양성평등을 위한 소임을 다하고 여성 권의 신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과 문화확산을 위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여성의 권리와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이 기간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과 문화확산을 위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제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사랑꾸러미 나눔

김제시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조금자)는 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꾸러미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원봉사자 20여명이 추석 명절에 필요한 멸치, 황태제, 건새우를 꾸러미로 만들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80세대에 전달해주며 인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소방서, 축사시설 관서장 현장방문행정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은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행정은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방문행정 뿐만 아니라 노후도 등을 고려한 소방특별조사 실시·죽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도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사내 노후 전기시설 등 개선 권고△최근 축사 화재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시 조치방법△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이 있다.

소재실 서장은 "무주·장수군은 축사시설이 많은 지역인 만큼 군민들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보승(전 전북도 건설교통방재국장) 별세= 별세일: 7일, 빈소: 전주효자장례타운 301호(3층),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승화원 효자추모관
▶▶상주·부인: 최영자, 자: 이동영,녀: 이은영, 진영, 소영, 은정, 자부: 임수노아, 사위: 최선호, 김일영, 손: 이가온, 외손: 최제인, 김상현, 주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